



마음 거울

울산중양고 2-2 정해린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한다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표정이지만

거울은 축 늘어진 나의 다크서클을 비춰준다

학교를 가 애써 미소 지으며 공부를 한다

겉으로 보기엔 공부를 재밌어하는 학생처럼 보이지만

거울은 지쳐버린 나의 흐릿한 눈동자를 보여 준다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 파묻힌 채 휴식을 취한다

겉으로 보기엔 단지 피곤한 학생처럼 보이겠지만

거울은 작은 행복을 머금은 나의 올라간 입꼬리를 비춰준다

창밖을 보며 곰곰이 생각하고 상상해 본다

겉으로 보기엔 미래가 막막해 불안한 학생처럼 보이겠지만

거울은 나의 커다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보여 준다

겉모습만 보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알아봐 주는 거울은 마치 또 다른 나인 것 같다

